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편은 시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의 많은 구절에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시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죄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의 말씀에는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언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시는 가까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멀게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들을 예언시, 메시아시, 종말시 또는 심판시 등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은 다양한 시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데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바탕으로 하는 메시아시와 마지막 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심판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9:21에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9:28부터의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의 마지막 상황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 때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 마르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전에 읽어 드렸던 69:21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퍼즐처럼 흩어져 있는 말씀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또한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볼 때 우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69편에서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행 1:20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지금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 오늘 69:25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배경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값으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었지만 대제사장들은 이 돈을 다시 성전 금고에 넣지 않고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룟유다가 직접 산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가룟유다로 인해 생긴 피밭을 설명하면서 오늘 시편 69:25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 예수님의 시대에 이루어 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후의 시대, 그러니까 신약의 시

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신약 성경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성경을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주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한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어느 곳을 펼쳐도 그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이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는 하지만 구약성경도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